

“스마트 새병원 건립 ‘벽돌’ 쌓듯 차곡차곡”

전남대총동창회 ‘벽돌쌓기 특별기금’ 모금

최동석 의대 동창회 신입회장 2천만원
허정 전 총동창회장 등 3명 2천여만원
작년 11월부터 219명... 연말까지 지속
정신 병원장 “연대·릴레이 기부 감사”

“지역민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미래형 스마트 새병원 건립을 위해 동문들이 ‘벽돌 한 장’을 보태는 마음으로 동참하길 바랍니다.”

전남대 의대 동창회가 전남대총동창회의 역점 사업인 ‘새병원 건립 벽돌쌓기 특별기금’ 모금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며 모금 병원의 미래 혁신을 위한 동문 기부 릴레이의 포문을 열었다.

2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가 지난달 30일 오후 6시30분 광주 L7 총장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



전남대 의대 동창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30분 광주 L7 총장 바이 롯데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갖고 새병원 건립 성공 기원 ‘특별기금 릴레이 기부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정신 전남대병원장, 류해경 전남대 총동창회장, 최동석 전남대 의대 동창회장.

기총회에서 새병원 건립 성공을 기원하는 특별기금 릴레이 기부식을 개최했다.

이번 릴레이 기부는 지난해 4월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하며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전남대 총동창회 차원에서 창립 70주년 기념 성업의 일환으로 전개 중인 ‘벽돌쌓기 특별회비 운동’에 의

대 동문들이 함께하고자 성사됐다.

기부 릴레이의 첫 주자로 나선 최동석 신입 의대 동창회장은 2천만원(새병원 누적 후원금 5천만원)을 기탁했으며, 허정 전 전남대총동창회장 1천만원(2천만원), 김해송 전남대 동창회 차기회장 1천만원, 양대열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원로교수 200만원 등 현장에서만

총 4천200만원의 특별기금이 모였다. 이로써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전남대 총동창회의 ‘새병원 건립 벽돌쌓기 운동’에 참여한 동문은 219명이다.

총동창회는 오는 12월31일까지를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범동문 특별회비 운동 및 지역민 동참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다.

최동석 신입 전남대 의대 동창회장은 “미래형 스마트 새병원 건립은 우리 의대 동문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체의 오랜 염원”이라며 “의대 동창회가 릴레이 기부로 선반클, 국내에서 활약 중인 수많은 동문이 위대한 여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정기총회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새병원 건립을 위해 가장 먼저 릴레이 기부로 강력한 연대의 뜻을 보여주신 최동석 회장님과 허정 전 회장님, 김해송 차기회장님, 양대열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동문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기금은 전남대병원이 호남 거점 국립대병원을 넘어 글로벌 첨단 스마트 병원으로 우뚝 서는 데 가장 투명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기수회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간호사의 날 ‘봄날의 심포’ 성료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병원 미래의료 혁신센터 야외가든에서 2026년 간호사의 날 행사 ‘봄날의 심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바쁜 의료현장 속에서도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들에게 잠시나마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 조직 내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간호사들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기수회 기자

을 전했으며, 참여형 퀴즈 이벤트와 경품 추첨도 함께 진행돼 현장 분위기를 한층 밝고 활기차게 만들었다.

이정희 간호부장은 “24시간 환자 곁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간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수회 기자



여수시, 곡성 장미축제서 ‘섬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여수시는 “최근 시민소통담당관 직원들이 곡성 심정감기차마을에서 열린 제16회 곡성세계장미축제 현장을 찾아 섬박람회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서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전국 각지에서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섬박람회를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직원들은 섬박람회 마스코트 ‘다섬이’와 함께 홍보 팸플릿과 기념품품을 배부하며 박람회 개최 일정과 입장권 사전 예매 할인, 주요 프로그램 등을 안내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홍보를 통해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 분위기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광주 동물병원 7곳,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동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광주 사랑의 열매)는 “광주 지역 동물병원 7곳이 단적으로 사랑의열매 착한가게에 최근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착한가게는 매월 매출액 중 3만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지역 내 돌봄이웃에게 나눔 것을 사랑의열매와 약정한 가게다.

이번 가입은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200호 회원이자 반려동물 구조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나눔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송정은 광주 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이 지역 수의사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자 추진했다. /이연상 기자



김은하 광주 사랑의열매 모금사업팀장은 “이번 가입이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농협 곡성군지부, 농심 가득 ‘사랑의 쌀’ 전달

농협 곡성군지부는 지난 1일 곡성군 사회복지관에서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에 사랑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전달된 쌀은 총 400kg으로 농협이 전개하고 있는 ‘농심전심운동’ 중 쌀 소비 촉진과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문화 정착,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는 읍·면 노인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랑의 쌀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대용 지부장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아침밥을 드셔야 한다”며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윤순석 전남대 명예교수, 모교 발전기금 1억 기부

윤순석 전남대 경영대학 명예교수가 모교 후학 양성을 위한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2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전남 대학본부 5층 집결실에서 이근배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와 김승용 조선훈 명예교수, 정용기 경영대학 명예교수, 나주몽 경영대학장, 신영직 경영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윤순석 명예교수는 1978년 전남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에서 회계학 박사 취득했다. 같은 해 전남대 회계학과 교수로 부임해 약 28년간 후학 양성에 헌신했으며, 재직 중 경영연구소장, 정보전산원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기부금은 ‘순석 인제 장학금’으로 운영된다. /박선욱 기자



순석 장학금은 경영대학 재학생 가운데 회계·세무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을 선발해 매년 3명에게 300만원씩 지원된다.

윤 명예교수는 “작은 정성이지만 후배들이 꿈을 키우고 전문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담양 창평면 지사협 ‘가스 안전케어 사업’ 추진

담양군 창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주거 안전이 취약한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집 가스 안전케어 사업’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사협 특화사업 일환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10가구를 찾아 가스자동잠금장치 설치와 노후 가스 밸브 교체 등을 지원했다.

가스자동잠금장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 공급을 차단해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다.

송희용 민간위원장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



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 기자

‘6월의 5·18민주유공자’ 이기환군



6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행방불명자 이기환(당시 15세·사진)군이 선정됐다.

2일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 따르면 이군은 1965년 2월20일생으로,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중학교 졸업 후 양복점에서 일하며 가계를 도왔다.

그러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접한 뒤 그 의미를 깨닫고 20일부터 시위에 참여했으며, 22일 집에 들러 “계엄군을 몰아내야 해요. 우리들을 다 죽이는데 이대로 참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전남도청으로 향하던 행방 불명됐다.

이기환의 위령비는 국립5·18민주묘지 제1묘역 10-25(행방불명자 묘역)에 조성됐다.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관계자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21회 기자의 날 기념 ‘기자의 훈’ 상

임재경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수상



한국기자협회는 올해 ‘기자의 훈(勳)’ 상 수상자로 임재경(사진)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임 전 부사장은 1961년 조선일보에서 언론계 생활을 시작, 1974년 한국일보로 이직해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 규탄 지식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강제 해직당하고 투옥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

이후 1986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결성을 주도하고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재야 민주화 운동에 집중했다. 군사독재의 ‘보도지침’을 폭로한 월간 ‘말’의 편집 출간을 지도하기도 했다.

또 국민주 모금 새언론 ‘한겨레신문’ 창간에 참여해 편집인 겸 논설주간, 부사장, 논설교수 등을 역임했다.

‘기자의 훈’ 상 선정위원회는 “임 전 부사장의 치열하고 투철한 언론인 정신은 후배 언론인들에게 살아 있는 전범(典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는 1980년 5월20일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 검열에 맞서 기자협회 산하 기자들이 제작 거부 투쟁에 들어간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06년 기자의날을 제정하고, 기자의 훈 상을 시상해왔다.

올해 시상식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다. /기수회 기자



목포대 미래캘린지대학 ‘전문가 특강’

김영식 교수 ‘AI 시대 소통리더십’ 강연

국립목포대학교 미래캘린지대학(학장 박창규)은 지난 1일 담양캠퍼스 제5학관 교양공학강의실에서 재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2026년 미래캘린지대학 제1회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MNU(Mokpo National University) 전공특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인간 중심의 소통 역량과 리더십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GITC 국제대학 부총장이자 국내 대표 웃음치유 전문가로 알려진 김영식 교수가 ‘AI 시대의 소통리더십’을 주제로 진행했다.

김 교수는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대일수록 인간만이 가진 공감 능력과 소통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소통과 공감, 배려와 협력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다”고 강조했다. /무안=김상호 기자